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보험계약자에 불이익 우려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보험연구 '자차보험 환급' 보고서
2015년 대법 판결로 반환 가능성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볼 경우 자기부담금 약정이 무의미해지고 보험료 인상 등 보험계약자 전체에 불이익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이 지난달 31일 발간한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의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쌍방과실 차대차 사고로 차량이 손상돼 본인의 자차보험으로 선처리하면서 자기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반환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견해는 지난 2015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제시

하고 있다.

당시 판결에서 대법원은 보험회사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액'과 피보험자의 '남은 손해액'의 차액에 대해서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결은 화재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남은 손해액이 있는 경우 가해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보험자대위에 의한 구상권보다 우선한다는 취지다.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는 자차보험의 기능, 자기부담금 약정의 취지, 보험료 산출의 전제 사실, 자차보험계약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험연구원은 자차보험도 화재보험과 같은 손해보험이라는 점과 자기부담금은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자차보험 자기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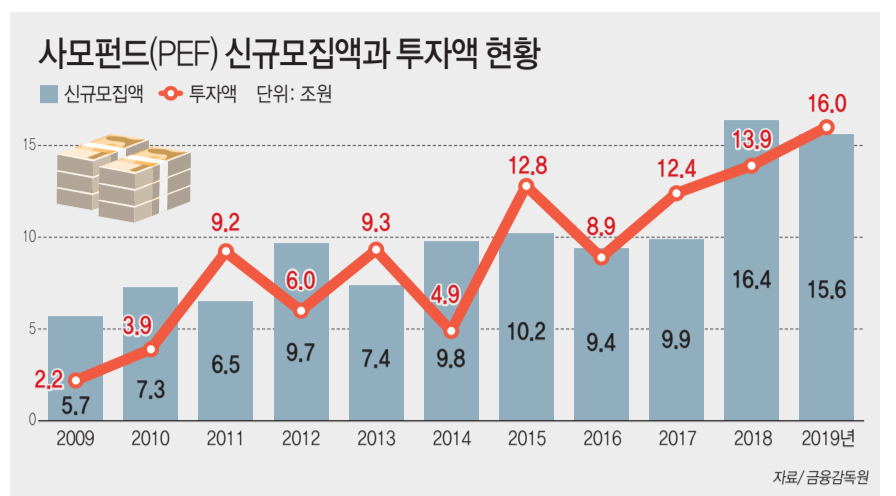
금이 대법원 판결에서 말하는 '남은 손해액'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자차보험은 상대방의 대물배상보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기능과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는 점,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가 이를 스스로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것이라는 점 등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다시 말해 자차보험의 기능과 자기부담금 약정의 취지, 보험료 산출의 전제 사실,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할 때 자차보험의 자기부담금은 상대방 또는 상대방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남은 손해액'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보험연구원은 '남은 손해액'에 대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보험자대위보다 우선한다는 대법원 판결은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사모펀드 연중 투자·회수액 '사상최대'

신설 PEF 수 전년 대비 8개 증가
지난해 PEF 투자집행 규모 16조
투자대상기업 중 국내기업 84.2%

지난해 새로 생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수와 연중 투자·회수액, 해산 PEF 수가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PEF에게는 저평가된 우량기업을 살 수 있는 투자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달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PEF는 총 721개로 사모펀드 제도가 개편된 2015년 대비 2.3배나 늘었다.

투자자가 PEF에 출자를 약정한 금액(약정액)은 84조3000억원으로 2015년 대비 1.4배 증가했다. 투자자가 PEF에 출자를 이행한 금액(이행액)은 61조7000억원으로 2015년 대비 1.6배 늘었다.

지난해 신설된 PEF 수는 전년 대비 8개 증가한 206개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신규 자금모집액(신설 PEF의 약정액)은 15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000억원 감소했다. PEF 소형화 추세로 신설 PEF의 평균 약정액이 줄면서 신설 PEF 수는 늘었지만 신규 자금모집액은 소폭 감소했다.

신설 PEF 중 프로젝트 PEF는 151개(73.3%)로 블라인드 PEF 55개(26.7%)보다 많았다. 신규 업무집행사

원(GP)의 경우 투자건을 발굴한 후 이를 바탕으로 자금을 유치해 프로젝트 PEF를 결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신설 소형 PEF의 비중은 78.6%로 전년 대비 소폭 높아지며 PEF 소형화 추세는 이어졌다. 신규 GP 대부분이 투자자 모집에 부담이 없는 소규모 PEF를 주로 운용했다.

지난해 PEF 투자집행 규모는 16조 원으로 전년 대비 2조1000억원 늘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직전 3년 평균 투자집행 규모 11조7000억원도 크게 웃돌았다. 주요 투자회사는 ▲대우건설(KDB인베스트먼트) ▲롯데손해보험(JKL파트너스 등) ▲서울미래파(그랜드하얏트서울 지배회사)(인마크 PE) 등이다.

투자는 국내기업에 주로 집중됐다. 투자대상기업 500개 중 국내기업이 421개로 84.2%를 차지했다.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국내 12조8000억원, 해외 3조2000억원을 투자했다.

PEF를 통한 추가 투자여력 지표인 미집행 약정액은 22조6000억원으로 전년 말 18조8000억원 대비 늘었다.

작년 투자회수액은 11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7000억원이 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요 투자회수 건은 ▲오렌지리이프생명보험·대성산업가스(MBK 파트너스) ▲SK인천석유화학(스톤브릿지캐피탈 등) ▲쌍용양회공업(한앤컴퍼니) 등이다.

/안성미 기자 smahn1@

신흥국, 코로나 진정 이후 인플레이션 가능성

대외 의존도 높은 신흥국 경제
내수 위축... 마이너스성장 예상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확대

〈IMF의 주요 신흥국 성장전망〉 (단위: %)

	태국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르헨티나	러시아	브라질	터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¹⁾
2019년	2.4	-0.5	0.1	-2.2	0.2	1.1	0.2	4.3	5	5.9	4.2
2020년 (전망)	-6.7	-6.6	-5.8	-5.7	-5.5	-5.3	-5	-1.7	0.5	0.6	1.9

주: 1) 회계연도 기준
자료: IMF WEO(2020년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된 이후 신흥국의 '테이퍼 탠트럼(Taper Tantrum·긴축 발작)'이 유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신흥국 리스크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들어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신흥국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자 신흥국의 재정건전성과 외화유동성 사정이 악화되고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 경제 특성상 글로벌 수요 위축에 따른 서비스와 재화 등 수출 타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 여건이 취약한 신흥국을 중심으로는 강도 높은 봉쇄조치가 시행되면서 내수, 생산 활동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신흥국 대부분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올해 신흥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태국(-6.7%), 멕시코(-6.6%), 남아프리카공화국(-5.8%) 등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신흥국의 재정건전성과 외화유동성 등이 저하되고 있으나 단기간 내에 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일부 신흥국들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브라질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은 재정지출 확대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르헨티나를 비롯해 신흥국 국채의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됐다.

또 수출감소, 해외자본 유출 등으로 외화유동성 악화가 우려되나 은행 부문은 부실여신 증가에도 자본건전성이 대체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의 손실흡수 능력이 크게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코로나19 진정 이후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선진국에서 공급한 막대한 유동성이 확산세 진정 이후 회수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신흥국의 테이퍼 탠트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신흥국의 경우 공급측 애로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단위: %)

/한국은행

/한국은행

/김희주 기자

제주항공, 한달 동안 보훈대상자 할인

제주항공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할인 대상 범위를 넓힌다.

제주항공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한 달 동안 호국보훈 할인 대상을 확대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보훈대상자 할인은 탑승일 기준 1일부터 30일까지 국내선 8개 전 노선에서 적용하며, 예매는 제주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웹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제주항공은 현재 국가유공상이자 1~4급 및 독립유공자(애국지사)를 비롯한 동반 보호자 1명에게 40% 할인을 제공하고, 비상이 국가유공자에게도 본인에 한해 30%의 할인을 연중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호국보훈의 달에는 대상을 확대해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희생자를 포함한 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특수임무 부상자와 공로자 등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보상대상자(군·



제주항공 항공기. /제주항공

경·공무원의 재해부상)와 이들의 유족에게도 본인에 한해 30% 할인혜택을 준다. 할인대상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호국보훈 대상 고객들은 원하는 이용 구간의 운임을 선택 후, 해당하는 신분확인(호국보훈 할인) 코드를 선택하면 된다. 단 선택한 구간의 운임이 신분확인(호국보훈 할인) 적용가보다 저렴할 경우 중복할인 되지 않는다. 할인대상자는 탑승 당일 공항카운터에서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IBK기업銀 “국내최초 음성으로 본인확인”

IBK기업은행이 지문, 홍채 등의 생체 인증에서 한 단계 발전된 음성본인확인(Voice ID) 서비스를 오는 6월 5일부터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음성본인확인인은 개인이 갖고 있는 100가지 이상의 목소리 특징을 모은 정

보로, 고객을 식별해 이를 상담과 금융거래에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일란성 쌍둥이, 형제자매의 음성도 구분 가능하다.

기업은행은 이 서비스를 고객센터에 도입한다. 고객이 상담원과 통화하며 음성정보를 제공하면, 다음 통화부터



15초 이내에 본인확인을 완료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